

# “순둥이 역할만 하다가 남 괴롭히니 재밌더라”

발성·말투 등 표현법 달리하며 변신 연기 스펙트럼 넓어지는 기본이었죠 스펙트럼 넓은 나이에 연기자 데뷔 어린 동기들과 경쟁, 지금의 자양분



연기자 김사권(35)은 두루뭉술하면서 반듯하게 생활하자는 신조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 마인드와 몸에 배었고, 화를 내는 일은 “연중 행사”가 됐다. 캐릭터도 온화한 성격을 주로 맡아 화를 내는 방법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 김사권이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기름진 멜로’에서 첫 악역을 맡았다. 그는 “남을 괴롭힌 적은 없지만, 연기로 하니 재밌었다”며 새로운 경험을 즐거워했다.

“기름진 멜로”에서 그는 “나에게 아무하고 고개 숙이는 놈이 좋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호된 사장을 연기했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당의 경영을 위협하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격의 인물이다.

“매번 차하고 반듯하며 상대역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다가 남의 것을 빼앗는 연기를 하니 새로웠다. 발성, 말투, 행동 등 연기 표현법 자체가 달라지니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 같아 성취감도 컸다. 기회가 된다면 골칫덩어리 막내아들을 연기해보고 싶다.”

그만큼 ‘연기자 김사권’의 히트러진 모습은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실장, 이사 등 대기업의 임원을 주로 맡았다. 그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자유분방한 역할이 지난해 방송된 tvN ‘부암동 복수자들’에서 가구공방 목수였다.

김사권은 “간혹 저를 재벌로 오해하시는데 속고 계신 거다. (웃음) 저도 캐릭터의 분위기에 취할 때가 있는데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계산하고 다음날 후회한다. 일상은 평범하다. 매주 목요일마다 농구하면서 땀 빼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다.

고교시절에도 김사권은 농구부원으로

활약했다. 지금처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158cm의 작은 신장에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피부가 희고 통통해 귀여우니 농구부의 마스코트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백대지”로 불리기도 했다. 하하! 다행히 고3 때 20cm가 컸는데 우유를 많이 마신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살이 다 키로 갔다. 동창들이 못 알아 볼 정도다.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생겼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연기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리즈’(전성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소처럼 일해야 한다”고 했다. 스펙트럼이던 2012년 MBC ‘골드타임’으로 데뷔해 또래보다 늦게 연기를 시작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다. 2002년 대전대 경영학과에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포기하고 2006년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스펙트럼 살의 새내기로 어린 동기들과 함께 한 대학생활은 큰 자양분이 됐다.

“어린 동기들과 지내면서 제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환경을 잘 적응해야만 제 미래에 자신이 생길 것 같았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장담금 받아가며 공부했던 시간들은 지금까지도 힘을 북돋아준다.”

김사권은 이미 40대를 내다보고 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길 바라고 있다.

“활동을 띄엄띄엄하면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불안한 미래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연기 자체를 즐기고 싶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김사권  
▲1983년 1월5일생 ▲2002년 대전대 경영학과 입학·중퇴 ▲2006년 동국대 연극영화과 입학 ▲2012년 MBC ‘골드타임’으로 데뷔 ▲드라마 ‘구여친클럽’ ‘한번 더 해피엔딩’ ‘황금빛 내 인생’ 등 ▲영화 ‘흑산도’ ‘연애, 그 후’ ‘무수단’ 등 ▲2013년 뮤지컬 ‘젊음의 행진’



김사권은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남들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부정적인 생각은 되도록 피하며 다가올 40대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는 각오다. 김정원 기자 won@donga.com

## #해시태그 컷



## ‘갯데리’ 홍진영의 모닝윙크

가수 홍진영의 상큼한 매력에 더위를 식혀준다.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윈크하는 그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귀에 꽃을 꽂고 휴양지 분위기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안긴다. 여름 컬러인 화이트 목걸이를 매치해 패션 센스까지 놓치지 않았다. 팬들은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애교 만점” 등의 반응을 보인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홍진영 #갯데리 #모닝윙크

##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예 잡학사전>

## 외국어 많은 ‘미스터 션샤인’ 배우들 개인과외 두고 연습

드라마에 등장하는 외국어가 간단한 인사말을 넘어 한 신을 장식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어가 어색하고 어색하면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진은 현장에 외국어강사를 초빙해 수시로 감수받으며 촬영을 진행한다.

현재 방송중인 tvN ‘미스터 션샤인’에는 영어, 일본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병헌은 영어와 일본어, 유연석·변요한·김민정 등은 일본어를 구사한다. 1900년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영어와 일본어는 필수적이다.

이들의 외국어 감수는 제작진이 미리 섭외한 일본어 전문 강사가 맡는다. 강사는 일본어대사 장면 촬영이 있는 날에만 현장을 방문해 해당 연기자와 1:1 강의를 진행한다. 연기자들은 강사의 발음을 녹음해놓고 틈틈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하지만 연습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연기자들에게 공평적으로 전달되는 대본에는 외국어대사가 써있지 않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연기자들 대본이 따로 있다. 또 번역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 한국어대사 외우랴 외국어대사 외우랴 연기자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아무리 집중해 연습한다 할지라도 백자상태에서는 습득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출연자 대부분은 촬영에 앞서 미리 각자 과외를 받았다. 이병헌·유연석·변요한·김민정 등은 캐스팅이 확정되자마자 외국어 공부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극중 일본어대사가 가장 많은 구동태 역의 유연석은 따로 강사를 두고 촬영 전부터 연습했으며, 현재도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슬미 기자

편집 | 심송수 기자 sss23@donga.com

## 팬들 속이고 연애하려다...위기의 ‘펜타곤’

멤버중 3명 열애설...이던 거짓말 화근 사인회 취소·음반활동 중단에도 분노



그룹 ‘펜타곤’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팬들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김효종(이던)에게 피드백을 요청한다”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급기야 11일 열리는 펜타곤 공식 팬클럽인 유니버스 1기 창단식을 앞두고 예매했던 티켓을 대거 취소하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이던을 그룹에서 탈퇴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소속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팬클럽 창단식에 이던은 불참한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늦은 것으로 보인다.

이던의 연애가 결정타가 됐지만, 이던과 함께 트리플H로 활동했던 후이도 같은 소속사의 그룹인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과 열애설이 제기됐고, 다른 멤버 유도도 같은 소속사 그룹인 CLC 예은과 열애설에 휩싸여 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소속사 측은 “후이와 수진은 이미 결별”했고, 유도와 예은은 “친구사이”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은 믿지 않는 눈치다.

이정연 기자

## 선예, 연예계 복귀 타진...넋심은 ‘미지근’

폴라리스엔터와 전속계약 논의중 “원걸 해체 발단” “이기적이다” 냉담

결혼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의 연예계 복귀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선예는 연예활동 재개를 위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논의중이다. 향후 활동분야와 방식 등 조율할 사항이 많지만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선예의 복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선예가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고,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그의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예의 복귀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선예가 원더걸스 해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는 이들이다. 선예가 팀 활동 중 결혼

을 선택하고 팀을 떠나는 바람에 원더걸스는 밴드 변신, 선미 재투입 등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원더걸스 팬들은 “선예가 멤버들은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의 결정으로 팀을 떠나 의도치 않게 원더걸스가 해체했는데, 이기적인 것 같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언제나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견도 많다.

선예는 2013년 5월 15세 연상의 캐나다교포 선교사 제임스 박과 결혼하며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건너갔다. 이후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2015년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 수순을 밟았다.

한 관계자는 “선예의 복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졌다”면서 “가수로 활동할 것인지 예능프로그램 위주로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 현재 거주지가 캐나다여서 국내를 오가며 활동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선예

백슬미 기자 bsm@donga.com